

사카 엘살바도르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한·시카(SICA : 중미통
합체제) 정상회의에서 뵙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각하 내
외분과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하께서는 지금 엘살바도르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의료 분야의 개혁정책들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인
이자 경영인으로서 쌓아 오신 풍부한 경험이 이러한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SICA의
출범을 주도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올해 6월 유엔 평화구축
위원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 또한 엘살바도르의 높아진 위상을 잘 보여 주
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중미의 핵심국가로 더 힘차게 발전해 갈 것으로 믿으며, 각하의 지도력과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엘살바도르는 우리에게 매우 각별한 나라입니다. 지난 1947년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UNTCOK) 9개국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원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962년 수교 이후에도 양국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도 늘 믿음직한 우방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가진 각하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두 나라의 오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의 우호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교역 확대는 물론 엘살바도르의 IT 시스템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지금 여덟 명의 엘살바도르 조종사들이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양국 간 인력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각하의 이번 방문이 경제·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엘살바도르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